한국 서단 미래 이끌 학생 공모전 심사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제2회 학생서예공모 입상작 선정
수상작 총 542점… 대상 군산여고 3학년 김은영 학생

한국서단의 미래를 이끌어갈 서예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제2회 학생서예공모전에는 대상 1점, 금상 3점, 은상 10점, 동상 30점, 특선 144점, 입선 354점 등 총 542점의 입상작이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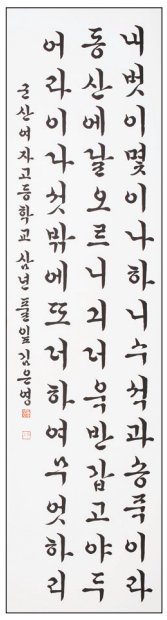
사)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송하진)는 한국서단의 미래와 서예교육의 진흥을 이끌어 가기위해 공모전 형식으로 제2회 학생서예공모전을 공모하여 심사를 마무리했다.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작품 총 847점이 이번 공모전에 출품됐다. 올해는 2023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를 앞두고 있어 더 많은 관심과 응모가 있었으며, 전년에 비해 150여점이 늘어난 수치이다.

출품작품의 지역별 분포도를 보면 수도권(서울 45점, 경기 137점, 인천 78점) 30.6%, 충남권(충북 12점, 충남 6점, 대전 12점, 세종 78점) 12.7%, 호남권(전북 103점, 전남 46점, 광주 41점, 제주 17점) 24.4%, 영남권(경북 36점, 경남48점, 부산 6점, 대구 169점, 강원 13점) 32.1%이다. 영남권 중에서도 대구 지역(169점, 19.9%)의 참여가 가장 높았고, 전북(103점, 12.1%)도 대구,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참여 비율이 높다.

수상작은 각 부문 별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특선, 입선 순으로 선정했다. 이번 대회에는 작년과 다르게 전체 대상 1점을 선정해 장학금 100만원을 수여한다. 금상은 부문별로 총 3점을 선정해 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은상은 10점을 선정해 각 20만원의 장학금을, 동상은 30점을 선정해 각 1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특선 144점, 입선 354점을 선정했으며, 총 수상작 수는 542점이다.

대상은 오우가를 반흘림으로 단아하게 쓴 고등부 김은영(전북 군산 군산여고 3학년) 학생의 작품이 대상의 영예를 얻었다. 중등부 금상에는 안희라(전남 곡성 곡성중 2학년) 학생이 해서로 쓴 '少年不學 長無能也' 작품이, 초등부 고학년 금상에는 이은호(경기 고양 성저초 4학년) 학생이 해서로 쓴 '挫銳解紛 和光同塵' 작품이, 초등부 저학년 금상은 '사자소학 구'를 해서로 쓴 박시은(인천 은송초 3학년)학생의 작품이 선정됐다.



대상 군산여고 김은영 학생 작품

김성덕 심사위원장은 "우리나라 서예의 앞날을 책임지고 나아갈 서예 꿈나무들의 작품이 전국에서 한문과 한글 그리고 문인화가 고르게 출품되었으며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좋은 작품이 많았다. 이들이 앞으로 한국 서단을 이끌어 나갈 귀한 인재이자,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서예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수상작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개최되는 제14회 2023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전시된다.

/김재훈 기자

'전주에서 맛보는 한식이야기'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식창의센터, 인문학 강좌 진행

한국 고유의 음식문화를 인문학적으로 접근, 친근하고 맛깔스럽게 풀어낸 강좌가 명사 5인의 이야기로 전주에서 개최된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9월 6일부터 15일까지 명사들과 함께 인문학 관점에서 한식을 만나볼 수 있는 '전주에서 맛보는 한식이야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 전주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시민들의 열띤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된 지난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강좌다.

전당은 그동안 시민들의 추가 강좌 개설의 지속적인 문의와 요청에 힘입어 인문학 강좌의 확대 운영을 결정, 이번 특강이 만들어지게 됐다.

특강은 음식문화에 관심이 높은 지역민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충족시키고자 한식 관련 도서 발간, 방송 출연 등 인지도와 대중성 높은 명사를 초청, 한식 문화를 인문학 관점에서 재미있고 깊이 있게 풀어낼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3회의 명사특강과 2회의 음식체험으로 구성해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되고 있다.

특강은 △9월 6일 정혜정 전주대학교 교수의 '한국인의 밥 이야기'를 시작으로 △7일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밥의 사회사' △14일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의 '우리가 미처 몰랐던 쌀과 밥 이야기' 등 3회의 특강이 진행된다.

특히 △9월 8일에는 넷플릭스 다큐 '셰프의 테이블 시즌3'에서 사찰음식의 명장으로 출연한 백양사 천진암의 정관 스님이 '천진암의 양념으로 맛보는 사찰음식'을 주제로, △15일에는 박찬일 셰프이자 칼럼니스트가 '전주10미를 담은 이탈리안 음식'이란 주제로 각각 음식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시민들의 강좌 추가개설에 대한 지속적 문의와 요청이 많아 세 번째 특강을 마련하게 됐다"며 "특강과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보는 체험으로 구성한 이번 강좌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강 접수는 전주음식이야기 누리집(http://jeonjufoodstory.or.kr)을 통해 14일부터 특강은 회당 80명씩 총 240명, 음식체험은 회당 40명씩 총 80명 등 모두 32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청목미술관 기획전시 전북의 불꽃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 선정… 15~27일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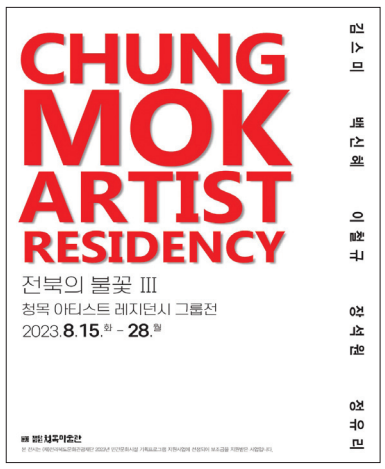
전북도민을 위로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가득 담은 기획전시 전북의 불꽃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재)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 이하 재단)의 '2023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된 재단법인 청목미술관(이사장 박형식, 이하 청목미술관)이 개최하는 전시회이다.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도내 민간 문화시설의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지원하여 문화시설의 기획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그 결과물을 도민에게 무료로 발표함으로써 도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에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청목미술관은 지난 2021년 2월에 개관하여 전북지역 미술 자료의 수집과 보존은 물론 전시·조사·연구에 힘써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내 미술 문화의 진흥과 도민의 시각예술 향유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전북의 불꽃Ⅲ은 청목미술관이 지난해 전북의 불꽃Ⅰ·Ⅱ에 이어 2년째 도민에게 선보이는 기획 전시로서 전북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신진 작가 5인(김스미, 백신혜, 이철규, 장석원, 정유리)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김선남 학예실장은 "전북의 불꽃과 같은 5인의 작가가 작업한 작품을 통해 전북도민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며 "더불어 희망의 메시지를 받은 도민들께서 5인의 작가가 더욱 힘 있는 불꽃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열렬한 관심과 성원을 쏟아주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전북의 불꽃Ⅲ은 15일부터 27일까지 청목미술관 1층 전시관에서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월요일 휴관). 특별히 16일 오후 3시에는 아티스트 토크와 순금박 라이브 드로잉 프로그램이 개최 행사로 진행된다.

/김재훈 기자

'KBS 국악한마당' 23일 군산예술의전당서 열린다

군산시는 KBS 전주방송국이 주최하는 'KBS 국악한마당'이 오는 23일 오후 7시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KBS 국악한마당은 지난 1990년 첫 방송 이후 국악인들에게 최고의 무대이며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 국내 유일한 전국 프로그램이다.

KBS본사와 전주방송국에서 격주로 제작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군산으로 찾아오는 열린 무대를 선사한다.

이날 프로그램은 연희집단 The 광대의 판굿·버나놀이·죽방울놀이, 조엘라와 신승태의 창작국악과 민요, 박애리와 제자들의 민요, 왕기철과 왕기석의 입체창이 준비되어 있다.

티켓은 전석 무료이며, 티켓링크에서 1인 2매로 한정해 예매가 가능하다. 또한, 8세 이상 입장 가능하며, 예매 및 현장배부는 공연당일 현장에서 공연 1시간 전부터 수령 가능하다.

한편, 이날 녹화된 가요무대는 오는 9월 30일 12시 10분 KBS 1TV를 통해 전국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찾아가는 예술인 맞춤형 안내서비스 '일사천리' 정읍서 열려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지난 9일 정읍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내서비스 '일사천리' 3차 사업을 진행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찾아가는 안내서비스-일사천리' 사업은 전북 14개 시·군의 지리적 접근성이 열악한 예술인들을 위해 현장에 직접 방문, 분야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현재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접수 행정 대행 서비스를 현장에서도 받아 볼 수 있다.

이번 3차는 정읍시 연지음악학원에서 열렸으며, 음악·미술·공예 등 다양한 분야 예술인이 참석했다.

/김재훈 기자

순창군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손끝으로 전하는 마음' 전시

(사)순창군 생활문화 예술동호회(회장 이훈도)가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 18일간 '손끝으로 전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옥천골미술관에서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순창군 생활문화 예술동호회는 관내 85개 단체, 1,100명의 동호인이 활동하는 지역의 대표 동호인 연합단체로, 이번 작품 전시회는 동호회 회원 110명이 참여해 300여점의 작품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전시회는 1부와 2부로 나뉘며 1부에서는 11일부터 21일까지 사진·한국화·서예·사군자·사화 작품이 전시되고, 2부에는 22일부터 31일까지 천연염색·프랑스자수·죽공예·퀼트 등의 작품이 전시된다.

/순창=이양원 기자